

대구지역의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강수진¹⁾·이영준²⁾*

¹⁾영남대학교 약학대학, ²⁾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Services Utilization in Daegu

Su Jin Kang¹⁾ & Young Joon Lee²⁾*

¹⁾College of Pharmacy, Yeungnam University,

²⁾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Recently,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Korea, and it led to increase demands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servic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on Korean traditional service utilization. Thu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Korean traditional service utilization patterns such as acupuncture, moxibustion and cupping, since Korean traditional services were specially used in treating chronic diseases for elderly peopl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ealth services utilization for quality improvement of healthcare systems.

Methods : We used data of 'Survey in Daegu' in 2008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of disease structure and utilization patterns of health care service of 1,097 cases of participated citizens.

Results :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50 age) in total participators is 52.4%. Male to female ratio is 1:1.65 and most common age group was between 50 and 59 years old. 84.2% of participators were admitted at oriental health 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were more used the service than man. The most common treated disease is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both male and female.

Conclusions : Acupuncture, moxa and cupping are widely used to treat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musculoskeletal disorders at oriental health care facilities. Elders and female prefer to be admitted at oriental health care facilities.

· 접수: 2010년 8월 12일 · 수정접수: 2010년 8월 22일 · 채택: 2010년 8월 23일

* 교신저자: 이영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전화: 053-770-2279 팩스: 053-768-6430 전자우편: gksxntk@dhu.ac.kr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Medicine, Utilization pattern, Acupuncture, Moxa, Cupping, Western medicine, Unlicensed organization

I. 서론

사람들은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원, 한의원, 병원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경험을 통한 민간요법을 활용하여 자가치료를 선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방과 양방 의학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정도 등의 요인에 의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⁴⁾

현대문명의 발달과 의학의 발전은 국민의 평균 수명의 증가를 가져왔고,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2%에 이르렀고 2005년에는 9.1%에 도달하였다.⁵⁾ 노인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도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진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의료서비스 수진율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상당히 높게 보고되었다.^{6,7)} 급격한 노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더욱 가중되어 의료제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현저한 증가는 질병 양상에도 변화를 주어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였고, 전체 사망원인도 암,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성질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한방 의료서비스는 고령층에서 선호하고 노인 인구의 이용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3,8)}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침, 뜸과 같은 한방 요법은 민간요법과 혼재되어 제공이 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라는 변화 속에서 한방 의료의 이용 실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노령화 사회에 적합하고 올바른 한방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한방 의료 서비스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의료기관에서의 한방 의료 서비스 이용과 양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한방요법이라 할 수 있는 침, 뜸, 부항 시술에 대해 일반인들의 시술기관에 따른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한 '수성구 폭염 축제' 및 '한여름 밤의 건강축제'에 참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의사회가 시행한 '한방 의료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수성구 폭염 축제' 및 '한여름 밤의 건강축제'에 참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규모는 1097명의 자발적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축제에 참석한 사람 중 자발적으로 응답한 경우이다.

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축제기간 중 설치된 한방부스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주요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요법 이용에 관한 문항 7문항,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요법에 관한 문항 2문항, 무면허 한방 요법 시술에 관한 문항 2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한방 요법 이용실태와 관련된 11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ver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표시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χ^2 test를 통해 각 문항별 응답 빈도에 따른 분석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수성구 폭염 축제에 참가하여 자발적으로 응답한 전체 조사 응답자는 1,097명 이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59.7%로 남성(36.2%)보다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평균 49.6세로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40대와 50대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대졸이 36.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요법 치료 경험

한방 의료기관에서 침, 뜸, 부항치료를 받아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성별	남자	397	36.2
	여자	655	59.7
	무응답	45	4.1
나이	10대 이하	10	0.9
	20대	57	5.2
	30대	142	12.9
	40대	281	25.6
	50대	349	31.8
	60대	192	17.5
	70대 이상	34	3.1
	무응답	32	2.9
	평균±표준편차	49.6 ± 11.9	
교육정도	중졸이하	65	5.9
	고졸	321	29.3
	대졸	405	36.9
	대학원졸	46	4.2
	무응답	260	23.7
합계		1,097	100.0

Table 2. The variables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utilization

		N	%	χ^2	p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치료 경험	예	907	82.8	470.369**	<0.001
	아니오	189	17.2		
	합계	1,096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경험이 없는 이유	아플까봐 두려워서	38	22.5	99.491**	<0.001
	효과를 믿지 못해서	15	8.9		
	기타	116	68.6		
	합계	169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효과 만족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102	11.4	1,054.626**	<0.001
	만족스러웠다	636	71.1		
	마찬가지였다	143	16.0		
	더 악화되었다	13	1.5		
	합계	894			
한방의료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	별로 불편한 점이 없었다.	653	76.6	1,717.331**	<0.001
	치료받는 동안 통증이 심했다	66	7.7		
	청결하지 못했다	29	3.4		
	치료하고 나면 피로하다	72	8.5		
	기타	32	3.8		
	합계	852			
양방의료기관에서 한방치료 경험	예	263	25.3	252.547**	<0.001
	아니오	775	74.7		
	합계	1,038			
양방의료기관에서 한방치료 효과 만족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28	11.3	207.656**	<0.001
	만족스러웠다	151	61.1		
	마찬가지였다	67	27.1		
	더 악화되었다	1	.4		
	합계	247			
무면허 한방치료 경험	예	184	17.9	423.735**	<0.001
	아니오	844	82.1		
	합계	1,028			
무면허 한방치료 이유	효과가 더 좋을 거 같아서	44	27.8	56.785**	<0.001
	치료비가 싸서	14	8.9		
	주위의 권유로	76	48.1		
	기타	24	15.2		
	합계	158			

* p<0.05, ** p<0.01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 응답자 1097명 중 907명(82.8%)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90명(17.2%)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무응답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였고, 30, 40대에서 한방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한방 요법 치료 경험이 없는 190명에 있어서 한방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기타에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아플까봐 두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9.981$, $p=0.002$).

한방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한방 요법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서 ‘불편한 점이 없었다.’(76.6%)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지만 ‘불편한 점이 없었다.’와 ‘기타’ 문항을 제외한 분석에서 치료 후 피곤을

느끼는 경우와 치료를 받는 동안 통증을 느낀 경우가 불편한 점으로 분석되었다($\chi^2=19.485$, $p<0.001$).

3. 한방의료기관에서 침, 뜸, 부항 치료를 받은 부위

침, 뜸, 부항 치료를 받게 된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49명(82.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내과 질환 54명(5.3%), 두면부 질환 24명(2.3%), 기타 15명(1.5%)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비인후과 질환, 부인과 질환, 비만이 각각 5명(0.5%), 3명(0.3%), 2명(0.2%)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모든 한방치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침, 뜸, 부항에 국한시켜 조사한 결과라 생각된다.

4. 타 기관에서의 한방 요법 치료 경험

양방 의료기관에서 침, 뜸, 부항과 유사한

Table 3. Korean Traditional medical utilization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clinics

		한방의료기관 한방치료 이용경험				χ^2	p
		예		아니오			
		N	%	N	%		
성별	남자	312	35.9	84	46.4	7.097**	0.008
	여자	558	64.1	97	53.6		
나이	<30	155	17.6	53	29.4	18.792**	0.001
	30대	240	27.2	41	22.8		
	40대	304	34.4	45	25.0		
	50대	153	17.3	38	21.1		
	>59	31	3.5	3	1.7		
교육정도	중졸이하	58	8.4	7	4.8	5.459	0.141
	고졸	272	39.3	49	33.8		
	대졸	323	46.7	82	56.6		
	대학원졸	39	5.6	7	4.8		

* $p<0.05$, ** $p<0.01$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조사 응답자 중에 263명(25.3%)이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775명(74.7%)은 치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 하였다(Table 2). 양방 의료기관에서 시술된 한방 요법 효과에 대한 만족도에서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치료 경험이 있는 조사 응답자 중 약 70% 이상이 치료 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료 경험의 차이 분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40, 50대가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요법 치료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중졸이하에서 치료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의료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서 유사 한방 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84명(17.9%) 이었고,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844명(82.1%)로 나타났다. 무면허 유사 한방 요법 치료를 받은 이유로는 ‘주위의 권유로’가 76명(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면허 유사 한방 요법 치료 경험 분석에서 40대에서 높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성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고, 학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IV. 고찰

한방 의료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상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제한적으로 대구 지역에서의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축제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대상자들의 한방 의료 이용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선택적 비뮴립(selective bias)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늦은

Table 4. Korean Traditional medical utilization in Western medicine clinics

		양방의료기관 한방치료 이용경험				χ^2	p
		예		아니오			
		N	%	N	%		
성별	남자	87	34.4	287	38.7	1.481	0.224
	여자	166	65.6	455	61.3		
나이	<30	25	9.8	175	23.3	35.123**	<0.001
	30대	56	21.9	212	28.3		
	40대	103	40.2	222	29.6		
	50대	61	23.8	119	15.9		
	>59	11	4.3	22	2.9		
교육정도	중졸이하	22	12.4	36	5.8	10.933*	0.012
	고졸	71	39.9	231	37.4		
	대졸	78	43.8	312	50.5		
	대학원졸	7	3.9	39	6.3		

* p<0.05, ** p<0.01

저녁 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시간에서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조사시간과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한방 의료기관의 이용 현황이라 말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한방 의료 기관에서 침, 뜸, 부항과 같은 치료를 이용한 이들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그리고 40대에서의 이용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방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령 집단별로 50세 이상에서 한방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4)} 본 연구에서는 40대에서 50세 이상보다 한방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대에 50세 이상보다는 그 이하에서 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해석되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령층의 이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이 40~50대에서 많이 분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고졸이하의 학력 군이 대졸이상의 학력군보다 근소한 차이로 한방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였고, 대졸의 학력 군에서 한방 의료기관의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원재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중 최고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의 학력이 높을수록 보건기관 서비스보다 한방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는 고령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농림어업직 등의 육체노동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2,9)}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서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 응답자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조사는 한방 의료서비스의 모든 한방치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침, 뜸, 부항에 국한

Table 5. Korean Traditional medical utilization in unlicensed organization

		무면허 한방치료 이용경험				χ^2	p
		예		아니오			
		N	%	N	%		
성별	남자	64	35.8	308	38.1	0.335	0.563
	여자	115	64.2	501	61.9		
나이	<30	13	7.2	189	23.1	45.912**	<0.001
	30대	35	19.3	236	28.9		
	40대	90	49.7	233	28.5		
	50대	38	21.0	135	16.5		
	>59	5	2.8	24	2.9		
교육정도	중졸이하	10	8.5	49	7.3	3.794	0.285
	고졸	53	44.9	246	36.5		
	대졸	49	41.5	340	50.4		
	대학원졸	6	5.1	39	5.8		

* p<0.05, ** p<0.01

된 이용실태조사라서, 결과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심하게 치중되어 나타났다. 이한울은 한방 의료 서비스는 뇌졸중, 근골격계, 원인불명 및 손상 등의 특정 몇 개의 질환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⁹⁾ 침, 뜸, 부항 치료의 근골격계 치료 이외의 내과질환, 기능성 질환 등의 치료 및 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의 대구한의사회에서 실시한 한약복용에 관한 조사에서는 본 연구조사와 달리, 근골격계 질환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방기관에서 한방 요법 치료를 이용한 경험자는 80% 이상이 되어 한방 의료서비스가 매우 대중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요법에 대한 치료효과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다. 의료서비스 선택을 결정하는 행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서비스의 질로 평가하게 되고, 의료서비스의 선택은 주어진 가격에서의 기대되는 서비스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¹⁾

본 연구에서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한방 요법의 치료 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한방 요법에 대해서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한방 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폭넓게 사용되는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치료분야라서 더욱 만족도와 이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불편한 점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불편한 점을 호소한 경우에는 치료 후 피곤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치료받는 동안 통증 유발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방 요법이 시술되는 동안 장시간 신체에 자극을 유발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치료과정에서 유발되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성이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과정에서 한방 요법이 피부에 강한 자극을 장시간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어 차후 더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요법을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25%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자들 중 약 70%가 치료효과에 만족한다고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양방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통증 요법 중 하나인 intramuscular stimulation(IMS)요법에서 시술과정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침을 한방 요법과 동일한 것이라 인식한 것으로 해석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에 대한 조사는 추후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전체 조사 응답자들 중 약 1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면허 유사 한방 요법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교육수준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면허 유사 한방 요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 보다 효과가 더 좋을 거 같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의 경험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무면허 한방치료를 선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양방 의료기관 이용 경험과 유사하게 치료효과를 위해서 여러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한방치료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추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조사를 통해, 한방 의료기관

에서 한방 요법 치료는 매우 대중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방 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치료분야라서 더욱 만족도와 이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방 의료기관에서의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무면허 유사 한방 요법의 이용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면허에 맞는 치료를 인식하게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침, 뜸, 부항 치료의 근골격계 치료 이외의 내과질환, 기능성 질환 등의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임을 과학적 뒷받침을 통해 대중적 인식을 넓히는데 노력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V. 결 론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수성구 폭염 축제’ 및 ‘한여름 밤의 건강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 의료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지만, 조사대상의 선택과 조사가 이루어진 범위의 제한점 때문에 일반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

1. 대부분의 조사 응답자들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요법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40대 연령층이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졸의 학력을 가진 군에서 한방 의료기관 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대부분 치료 효과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보였지만, 한방 요법 시술에 수반되는 통증이 두려워 한방 요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치료 후 피곤함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분석되었다.

2. 조사 응답자들 중 약 25%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에서,

중졸이하의 학력에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조사 응답자들 중 약 18%가 무면허 유사 한방 요법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에서 치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한방 요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비 지원

이 논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방 의료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참고문헌

- 이원재. 양·한방의료 서비스 선택에 관한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1998; 8(1): 183-202.
- 유왕근.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요구도.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3; 7(2): 45-64.
- 김성진, 남철현, 김재돈, 김병화, 김기열. 한방 의료이용 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4; 8(1): 89-107.
- 박현애, 황지인. 한국 성인의 의료이용 양상과 결정요인. 의료경영학연구. 2007; 1(1): 59-67.
- 통계청. 2005고령자 통계. 2005.
- 김병익, 이영조, 한달선. 의료보험 적용 인구의 의료 이용도와 가입 기간의 관계. 예방의학지. 1990; 23(2): 185-193.
- 김정순.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의학지. 1991; 24(2): 105-119.
- 김현주, 홍성철, 이상이, 김명주, 황승욱. 노인 입원 환자의 질병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노인병. 2003; 7(4): 295-304.
- 이한울. 계층별 한방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6.